

KIA ‘달빛시리즈’ 연승가도… 지역민 웃음꽃 피웠다

‘V12’까지 2승 남아… 기대감 고조
어린팬-올드팬 모두 한마음 한뜻
취준생·직장인·자영업자도 ‘활력’
“통쾌한 승리에 위로·위로 받았다”
오늘부터 이틀간 챔피언스리그 응원전



“KIA 야구 보는 맛에
잡니다. 기분 좋게 대구
행 버스에 오르게 됐으
니까, 기세를 이어서 12
번째 우승까지 순항했으면 좋겠습니다.”

KIA타이거즈가 광주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의 ‘달빛’ 한국시리즈에서 2연승을 내달리며, 지역이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다. 팬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KIA가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단 2승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12번째 정상 등극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특히 80~90년대 한국 프로야구를 주름잡았던 ‘해태 왕조’의 탄생과 쇠락을 목도했던 올드팬들은 이날 압도적인 타이거즈의 경기력을 지켜보며 ‘그 시절’ 향수에 잠겼다.

정봉섭(65)씨는 “당시 타이거즈는 20여년동안 9차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거두는 등 리그의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했고, 호남사람들의 한과 슬픔을 달래줬다”며 “오늘 경기를 지켜보니 사라져 버린 해태의 재림을 보는 듯하다. 당시의 추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강동수(70)씨는 “KIA의 우승을 확신하고 있다. 올해 젊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 신구(新舊) 조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타이거즈가 다시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가 야구명이 타이거즈 재건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승리를 처음 지켜본 어린 팬들도 친구와의 특별한 추억을 마음 속 깊이 간직했다.

풍암중학교 3학년 서무결·김민서·박도

하·한은서 학생은 “타이거즈를 응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 한국시리즈 경기를 보게 됐다”며 “하교 후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게 돼 기쁘다. 오늘 연승의 기세를 이어서 우승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도 타이거즈의 비상에 열광하며, 맥주 한잔에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털어냈다.

차시원(24)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올해 KIA의 통쾌한 승리를 지켜 보면서 걱정을 덜어냈고, 많은 위안을 받았다”며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KIA의 기운을 받아나도 조금 더 힘을 내보겠다”고 다짐했다.

광주 곳곳의 주점들은 밤 늦은 시간까지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팬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장기간 이어진 불경기로 지친 자영업자들도 이날만큼은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박미희씨는 “1차전 승리로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손님들이 단체 응원을 위해 가게를 많이 찾아왔다. 올해 타이거즈의 선전이 매출에 큰 힘이 됐다”며 “타이거즈의 열렬한 팬으로서 KIA의 통합우승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원정경기가 열리는 25일과 26일에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무료(티켓링크 예매 수수료 1000원 별도) 홈 응원전이 개최된다. 이 기간 챔피언스필드 내 팀스토어와 각종 판매시설 등 부대시설이 운영되며 응원단도 함께 해 팬들의 응원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 경찰 60여명이 동원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경기장 주변 교통로를 수동 관리해 팬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5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한다.

강기정 시장은 “KIA타이거즈가 우승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광주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타이거즈를 열심히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4면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대한민국 국향대전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찾은 관람객과 어린이들이 24일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형형색색 국화와 핑크몰리가 피어있는 꽃 길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국향대전은 ‘함평 국화의 겨울이 야기’ 주제로 내달 3일까지 열린다.

나건호 기자

2050년 전남인구 절반 ‘고령자’… 노후 준비는 ‘막막’

통계청, ‘고령자 특성·의식변화’

작년 전남 65세 이상 25.2% 달해
생활비 마련은 ‘본인·배우자 부담’

오는 2030년이면 광주 인구 10명 중 2명, 전남 인구 10명 중 3명이 고령자(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50년에는 광주 인구 3명 중 1명, 전남 인구 2명 중 1명이 고령자로 전망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 비중은 광

주 15.9%, 전남 25.2%로, 10년 전과 비교해 각각 6.0%p·5.0%p 증가했다. 2030년에는 광주 인구 22.6%, 전남 인구 32.5%가, 2050년에는 광주 인구 38.2%, 전남 인구 49.0%가 고령인구일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초고령사회 진입이 현실화한 가운데 지난해 기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중은 광주 60.3%, 전남 52.6%로, 양 지역 모두 노후 준비 방법 중 ‘공적 연금’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후 준비 중인 고령자 비중이 10년 전보다 각각 12.3%p·18.0%p 증가했음에도 광주 고령인구 10

명 중 4명, 전남 고령인구 절반가량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생활비 마련 방법 역시 ‘본인·배우자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부담’, ‘정부·사회단체’, ‘자녀·친척 지원’ 순으로 높았다. 광주지역 ‘본인 부담’ 비율은 67.3%, 전남은 73.5%로, 10년 전보다 12.7%p·11.8%p 증가했다. 반면 ‘자녀 지원’은 광주 13.3%, 전남 10.4% 등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각각 -20.6%p, -17.5%p 줄면서 고령인구 대부분이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다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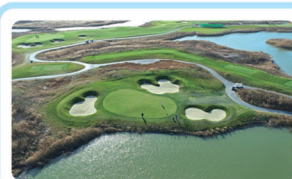


힐링과 스포츠의 천국, 모두 즐기는 특별한 여행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해남 산이정원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솔라시도 컨트리클럽

코스모스링스

